

인도네시아 서부 술라웨시의 발라니파 왕국의 기원 신화에 나타난 엘리트 세력의 형성 과정과 양두정치 양상*

송 승 원**

요약

이 논문은 인도네시아 서부 술라웨시주에 수립되었던 발라니파(Balanipa) 왕국의 두 전통 엘리트 세력인 푸앙(puang)과 다잉(daeng)의 기원과 계급 문화에 대해 살피고 있다. 푸앙은 관습 세력(kaum adat)에 속하며, 다잉은 귀족 세력(kaum bangsawan)이다.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의 원(原) 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동부 인도네시아에서 관습 세력은 귀족 세력의 권력을 견제하며 양두정치를 이끈 세력이다. 관습 세력과 귀족 세력은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의 문화에서 사회 이데올로기인 ‘도래 우선순위의 원칙’에 따라 수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관습 세력은 지역에 최초로 도래해 땅을 개간한 조상의 후손 씨족들이 차지한다. 이와 함께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의 문화에서는 왕국이 수립될 때 외지인을 군주로 추대하는 이방인 군주제 전통이 폭넓게 나타나는데, 동부 인도네시아에서는 관습 세력이 이방인을 추대하고, 전자는 관습을 주관하고 후자는 정치를 담당하는 양두정치를 발전시켰다. 발라니파의 기원 신화를 분석해 보면 푸앙 역시 이방인 세력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1042458).

이 연구는 2020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 교수, swsong@hufs.ac.kr

으로 간주되며, 이것은 비록 그 씨족이 지역에 첫 번째로 도래한 이주 세력은 아니었지만, 세력 경쟁을 통해서 “땅의 주인” 즉 관습 세력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푸앙이 군주를 추대해 양두정치를 펼쳤지만, 군주의 뿌리를 푸앙의 뿌리와 동일시 함으로써, 두 세력의 기원이 같지만 권력 남용 방지와 효율적인 사회 운영 등의 목표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보편적인 양두정치라는 정치문화 속에서 권력과 권위를 분리해서 사회를 다스린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주제어: 발라니파 왕국, 푸앙, 다잉, 양두정치, 이방인 군주제

I. 들어가며

이 논문은 인도네시아 서부 술라웨시주 (West Sulawesi Province)에 수백 년간 존재했던 발라니파 왕국(16세기 초 - 1959)에 존재했던 전통 엘리트들과 계급문화에 대해 고찰한다. 만다르인들(Orang Mandar)들이 세운 발라니파는 20세기 중반에 공화국의 수립과 더불어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으며, 영토는 현재의 폴레왈리-만다르군(郡)(Kabupaten Polewali-Mandar)으로 편입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낯선 이방인이나 연장자를 부를 때 푸앙(puang) 또는 다잉(daeng) 이라는 경칭을 쓴다. 자바 등지에서 사용되는 바팍(bapak)/이부(ibu)와 같은 경칭과 비슷한 셈이다. 그런데 사실 푸앙과 다잉은 왕조 시대에 이 지역에 존재했던 두 개의 엘리트 세력을 일컫는 용어였다. 푸앙은 타우 피아(Tau Pia)라고 불리는 소위 관습세력(kaum adat)을 일컫는 말이다. 다잉은 왕족을 포함한 귀족 세력(kaum bangsawan)을 의미했다. 공화국의 수립과 함께 봉건 계급 질서는 폐지되었지만, 현재에도 푸앙과 다잉의 후손들은 사회적 존경을 받는 존재들로 남아 있다. 다잉의 후손들은 지방 정치에서 주지사, 시장, 군수 등 요직을 독

접하고 있고, 푸앙들은 다잉에 비해 존재감이 많이 퇴색되었지만, 마을 단위에서 이장 등의 역할을 맡는 등 여전히 그 권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받고 있다.

다잉으로 불리는 귀족 세력은 봉건시대의 유럽이나 동아시아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엘리트 세력이었지만, 푸앙, 즉 관습 세력의 역할과 존재는 독특한 것이다. 이 세력은 아랍과 인도의 영향을 깊게 받은 자바나 수마트라가 아닌,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의 토착 원(原) 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동부 인도네시아에서 근대 시기까지 중요한 권위를 자랑했다.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은 중국 남부 지방에서 현재의 대만으로 이주한 뒤, 오스트로네시아어를 발전시켰다. 이후 기원전 4천 년 전부터 카누를 타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거쳐 서쪽으로 마다가스카르, 동쪽으로 마이크로네시아와 폴리네시아의 섬들까지 이주했다. 15세기 말부터 술라웨시나 말루쿠(Maluku), 누사텡가라(Nusa Tenggara) 등 동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기 시작한 유럽 상인들은 관습 세력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왕을 중심으로 한 귀족 세력을 유일한 엘리트 집단이라 인식했다. 귀족들은 왕에 선출되고 정치를 담당했지만, 관습 세력 역시 왕실의 중요 관직을 차지했고, 관습 위원회(dewan adat 또는 hadat)를 통해 왕의 권력을 견제하며, 상호 보완적이지만 경쟁적 힘을 구사했다. 따라서 많은 학자는 동부 인도네시아 왕조의 정치 문화를 관습세력과 귀족 세력이 양대 정치 세력으로 이끄는 양두정치(diarchy)로 묘사했다(Forth 1981; Henley and Caldwell 2008; Lewis 1988, 2006, 2010; Sahlins 1985, 2008).

두 세력의 관계는 상기 지역들에서 공통으로 발달한 다양한 은유를 통해 파악해 볼 수가 있다. 관습 세력은 ‘권위(authority)’를 가진 존재이며 귀족은 ‘정치 권력(political power)’을 가진 자들이라고 묘사되었다. 그리고 ‘권위는 권력에 우선한다’는 인식에 따라 관습 세력은 귀족의 ‘할아버지,’ ‘손위 형제 또는 자매’라는 은유적 표현이 넓은 지역에

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동남부 술라웨시 지역에 있었던 부톤 왕국(Kesultanan Buton)에서는 카오무(kaomu)라고 부르는 귀족 세력이 왈라카(walaka)라고 불리는 관습 세력의 주장들을 '할아버지'라고 칭했고, 왈라카들의 집 앞을 지나갈 때는 허리를 굽혀 절을 해야 했다(Schoorl 1994, 25). 발라니파에서도 푸앙들은 식민기 이전에는 다잉보다 권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푸앙과 다잉 세력 간에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었고, 식민 시기에 귀족을 유일한 사회적 엘리트로 하는 유럽식 계급 인식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다잉은 계급 구조에서 푸앙을 제치고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다(Rahman 2005, XI).

왕국 내 지도력이 두 개의 세력으로 이분화된 것은 오스트로네시아 어권에서 강력한 사회적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도래 우선순위의 원칙(precedence order of arrival)과 관련이 있다(Lewis 1988; McWilliam 1989; Fox and Sather, eds. 2006; Vischer ed. 2009). 이것은 제일 오래 거주한(또는 보다 오래 거주한) 이주자 세력에게 더 높은 사회적 지위가 부여되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어떤 무인도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최초 도래자 세력이 땅의 조상이자 관습의 주장으로 인정받고 사회의 엘리트가 되며, 늦게 도래한 이주자 세력일수록 사회 계급의 사다리에서 열등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촌락이 번성하면서 잉여물자가 발생하면서 정교한 사회 계급이 발달한 저지대의 왕국들에서는 후대 도래자들은 평민이 되고, 선(先) 이주 세력은 관습 세력이나 귀족 세력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원칙이다. 오스트로네시아 어권의 우선순위의 법칙은 듀몽(Dumont 1980)이 설명한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이 고정되고, “순수하거나 오염된” 개념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포스(Forth 2009, 191)는 후대 이주자 세력이 선대 이주자 세력을 제압하고, 자신들을 ‘최초의 이주자’ 세력으로 ‘선포’함으로써 우선순위가 뒤집힐 수 있는 ‘비(非) 고정적이고 역동적인’ 체계

라고 보았다.

그런데 오스트로네시아어 문화권에서는 도래 우선순위 법칙과 더불어 촌락 연맹이 왕국으로 발전할 때, 왕으로 토착인이 아닌 타 종족, 타 인종, 또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神人) 등의 이방인을 군주로 추대하는 “이방인 군주제(stranger-kingship)”의 전통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도래 우선순위와 이방인 군주제에 대한 역사는 왕실 기원 신화에서 잘 드러난다. 따라서 많은 학자는 기원 신화를 이주 세력들의 도래 순서와 계급에 대해 알려주는 역사적 텍스트라고 본다(Reuter 2006; Druce 2009; Gibson 2005). 로이터(Reuter 2006, 17-18)는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의 사회에서 도래 우선순위와 기원 내러티브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지속적인 이주의 역사에서 드러나듯, 이동성(mobility)이 뛰어난 민족이다…. 아마도 이런 엄청난 이동성 때문에 인간의 이동성이 사회 철학 개념의 중추가 된 듯 보인다. 특히 ‘기원(origin)’과 ‘우선순위(precedence)’가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다. 기원과 우선순위는 이주를 한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그들보다 먼저 도래한 다른 이주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선(先)이주 세력이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이미 주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현지 기원 내러티브(origin narratives) 들은 선 도래자들의 후속 이주 세력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식을 보여준다. 후대 도래 세력들은 사회의 가장 변방에서 선주민들에게 동화되는 것으로부터 현지 사회의 가장 중심축으로 통합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거쳐 현지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그런데 관습 세력과 이방인 군주는 로이터가 표현한 선 이주민과 후속 이주민 세력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은 발라니파 왕국의 푸양/다잉의 기원 신화의 분석을 통하여 두 계급의 분화가 어떤 문화와 관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두 세력의 관계를 오스트로네시아 문화 속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이방인 군주제”와 ‘도래

우선순위’라는 논의 속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동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오스트로네시아 문화권에서 도래 우선순위가 어떻게 사회적 이데올로기로 발전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왕국으로 발달할 때 왜 이방인을 군주로 앉히는 풍습이 발달한 것인지에 관해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하여 그 맥락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만다르인과 발라니파 왕국의 역사를 짧게 고찰해 보고; 제4장에서는 발라니파 지역의 푸앙의 형성 과정과 그 의미를 기원 신화와 영토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발라니파 다잉의 형성을 이방인 군주제와 기원 신화 검토를 통해 살펴본다. 두 계급의 상호 보완적이지만 경쟁적인 관계는 식민 시기를 거치면서 현대에 이르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결어 부분에서 간략히 요약해 보는 데 그칠 것이다.

만다르인들의 역사나 문화에 관한 기존 연구는 별로 없으며, 네덜란드 기록도 다른 지방에 비해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만다르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잊혀진 역사’라고 부른다. 그러나 1971년에 티남봉(Tinambung) 시에서 현지 역사가들이 ‘만다르 역사 세미나(Seminar Sejarah Mandar)’를 개최하고 발라니파의 역사를 재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 인용한 만다르 관련 역사서(Rahman 2005; Mandra 2005; Kila 2013; Yasil 2012)는 이 결과물(Kumpulan Seminar Sejarah Mandar)에 따라 구성된 것들이다. 이 중 라흐만의 연구(Rahman 2005)는 발라니파 연구에 있어 독보적인 현지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자는 2017년 7월에 발라니파의 중심 도시였던 마무주(Mamuju), 마즈네(Majene)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자료 수집 및 현지 역사가, 마카사르의 하사누딘 대학 교수들과의 인터뷰 및 자문을 진행했다.¹⁾

1) 본 연구를 위해 마무주 및 마즈네 시의 현지 역사가들인 하르디 자말(Hardi Jamal), 이크발(Iqbal), 안디 수리아디(Andi Suriadi)와 하사누딘대학의 교수인 루크만 팔리

II. 도래 우선순위를 통해 본 이방인 군주와 관습 세력 간의 관계

이방인 군주제는 인류학자 마샬 살린스(Marshal Sahlins 1985)가 폴리네시아 문화권에 속한 하와이의 정치문화를 연구하면서 정립한 이론이다. 어느 지역의 토착 세력이 타 종족이나 타 문화권,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神人) 등의 ‘이방인’을 군주로 추대하는 문화를 보편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이 정치적 전통은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제임스 폭스(James Fox) 등 호주의 인류학자들을 필두로 동부 인도네시아의 역사 속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성과가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다. 살린스는 혈통 기반의 사회 구조 속에서 새로운 정치 구조의 개입 없이는 정치적으로 변증법적 발전을 가져올 수 없으며, 주권과 권력의 '마법의 원천(magical source of power)'은 항상 외부의 다른 곳에서 온다고 여기는 폴리네시아인들의 인식에 관해 분석했다(Sahlins 2008, 178).

이방인 군주의 웅립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마다가스카르와 태평양 섬들의 기원 신화에서 발견된다. 기원 내러티브들에서는 초기의 이주 세력들이 무인도에 도래하여 토착 세력이 되고, 촌락 공동체가 확장하면서 사회가 복잡해지자 이방인을 군주로 추대하는 내용이 많이 등장한다. 신화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패턴에 따르면 이방인이 홀연히 신비로운 방법으로 산의 정상이나 해안가에 도래하여, 토착 사회의 공주나 촌장의 딸과 결혼 후 왕위를 계승하거나 초대 왕에 오른다. 살린스(Sahlins 1985, 73)와 하워드(Howard 1985) 등의 학자들은 이방인 군주를 통한 권력의 교체가 무서운 폭력과 반역 등을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혈혈단신으로 도래한 이방인 군주는

(Lukman Pali), 누르하야티(Nurchayati)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토착 사회로 완전히 동화되며, 상징적인 죽음 의례를 통해 현지의 신과 군주로 재탄생한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의 이방인 군주제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방인이 폭력을 통해 토착인들의 권력을 찬탈한 것이 아니라 후자가 전자에게 자발적으로 권력을 이양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했다. 이를테면 루이스(Lewis 2006, 169)는 누사텡가라의 타나아이(Tana' Ai)와 시카(Sikka) 지역에서 관습 세력인 타나푸앙(tana pu'an)이 왕인 라투(Ratu)에게 자발적으로 권력을 이양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지구상의 수많은 지역에서 이방인 군주제 전통이 발견된다. 이를테면 동남아시아 푸난(Funan) 등지에서 군주로 추대되었던 인도의 브라만들, 말레이 이슬람 왕국들의 술탄이 된 아랍의 사이드(Sayyid)들,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도래한 하와이의 군주들은 모두 이방인이 군주가 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Sahlins 2008, 178).²⁾ 근대로 들어오면 대표적인 이방인 군주는 영국 관료 출신으로 사라왁의 백인왕(White Rajah)으로 일백 년 넘게 지역을 통치한 제임스 브룩(James Brooke) 일가를 들 수 있다. 말레이반도와 수마트라, 칼리만탄의 해안가에 수립된 멀라카(Melaka), 아체(Aceh) 등 여러 이슬람 왕조들은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의 후손인 이방인이 홀연히 나타나 왕으로 추대한 내용이 기원 신화를 가지고 있다. 이방인 군주제는 심지어 아프리카와 마야, 잉카, 아즈텍 등의 미 대륙에서도 나타난다(Sahlins 2008, 178-180).

많은 기원 신화 속에는 이방인이 도래하여 군주로 추대되는 과정이 신비스럽게 그려져 있다. 수많은 신화 중에 대표적으로 말루쿠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나가(naga) 신화는 말루쿠의 포르투갈 총독이었던 안토니오 갈방(Antonio Galvão, 1536-1540)이 채록한 바찬 왕국(Kesultanan Bacan, 현 북 말루쿠 주에 위치)의 기원 신화인데, 아래와

2) 사이드는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하마드의 직계 후손을 의미한다.

같이 이방인 군주의 패턴이 나타난다(Jacobs 1970, 81-83; Andaya 1993, 53에서 재인용):

오래전에 이 지역에 아직 왕이 없었을 시절, 사람들은 원로(elders)가 다스리는 친족 집단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서로 반목했고, 전쟁이 일어났으며, 동맹은 맺어졌다가 깨지고, 서로 죽이거나 납치하고 공격했다...어느 날 섬의 유명한 원로인 비쿠시가라(Bikusigara)는 아름다운 등나무 관목을 발견하고 부하에게 줄기를 자르도록 명령했다. 줄기를 자르자 곧 붉은 피가 솟구쳐 나왔다. 이상한 현상을 보고 비쿠시가라가 주위를 살펴보니 큰 바위틈에 네 개의 나가의 알이 숨겨져 있었다. 그가 알들에게 접근하자 하늘에서 어떤 목소리가 내려와 그 알들에서 비범한 인간이 나올 테니 집으로 가져가라고 명령했다... 얼마 후, 알에서 세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이 부화했다. 이들은 성장해서 각각 바찬, 파푸아(Papua), 부통-방가이(Butung-Banggai)의 왕이 되었고, 여성은 롤로다(Loloda)의 왕비가 되었다.³⁾

나가는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뱀 신으로,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토착 세력을 상징한다. 대륙부 동남아의 초기 국가인 푸난(Funan)의 기원 신화에서도 나가의 딸, 소마가 인도에서 온 브라마와 혼인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바찬의 신화에서 나가 알에서 부화한 4명의 남매는 토착인이 아닌 신성한 인간으로, 이방인을 의미한다. 위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나가의 알에서 태어난 이들은 4개 왕국의 건국왕이자, 이후 귀족 세력의 조상이 된다.⁴⁾

3) 부통-방가이는 남부 술라웨시 저지대에 있었던 왕조이며, 롤로다는 북 할마헤라에 존재했던 왕국이다.

4) 초자연적 출생의 이방인이 군주가 된다는 것은 한국의 신화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를 테면 신라의 기원 신화에서 박혁거세가 알에서 부화한 것, 그리고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이라는 점은 그들 역시 토착인 세력이 아닌 이방인이 군주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방인 군주제는 혈족 정치(*consanguinal kindred*)와 인척 정치(*affinal kindred*) 간의 교통을 통하여 생동감 있는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이방인들은 토착인들에 비해 특권을 지녔다고 인식되었다(Sahlins 2008, 177-178). 헨리(Henley 2002, 65)는 토착 세력이 권력을 "수동적인 군주(*passive rulers*)"에게 이양하는 것은 왕이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폭정에 대한 불안의 표현이라고 보았다. 또한 전통 시대에 군주의 주요 역할이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재판장의 기능이었는데, 인맥들로 얽힌 토착인보다는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외지인이 더욱 객관적인 판단을 할 것이며, 또한 외지인 출신 군주가 토착 세력 간의 질투와 경쟁심을 덜 유발한다는 순기능이 있다고 보았다(Henley 2002, 11). 살린스(2008, 177) 역시 이방인 군주가 토착 왕실에 일어날 수 있는 근친상간, 과열된 계승 경쟁, 부정부패를 방지할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깁슨(Gibson 2005, 310-311)은 인도에서 온 브라만, 아랍에서 온 사이드들이 군주가 되면서 세계 종교를 수용하고, 기존 관습을 보완할 새로운 관습 체계와 신지식을 획득하여 보다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획득했다고 보았다. 이를테면 동남아시아의 군주가 인도의 브라만을 사위로 맞이하면, 왕실의 권위가 세계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했고, 외국인 사위를 맞이 않더라도 왕실의 의례를 이국적으로 치르고, 외국 물품을 진열해 놓는 것만으로도 왕실의 권위를 향상하는 것이라 여겨졌다. 이러한 것들은 외국 상인들과의 무역을 촉진하는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외국인과 수입품들을 갖춘 왕실은 그렇지 못한 주변의 왕실들에 코스모폴리탄적인 센터(*center*)로서 기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노스(Nourse 2008)는 이방인 군주제가 술라웨시 산악지역의 라우제(Lauje)인들에게 “필요악(*necessary evil*)”으로 여겨졌다고 분석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 도래한 이방인 군주는 말레이 세계의 교통어(*lingua franca*)로 사용된 말레이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해 라

우제인들을 노예로 잡아가는 저지대 종족들에게 이들을 잡아가지 말도록 설득하는 중재자 임무를 수행했지만, 곧 주민들을 착취하여 “도둑왕(rogue kings)”으로 불렸다고 지적함으로써 이방인 군주가 가진 부정적 측면을 보고했다.

그런데 나가 신화 속에는 이방인 군주 외에 또 다른 엘리트 세력에 대한 정보가 나타난다. 비쿠시가라, 즉 토착인들의 수장으로 그는 알에서 부화한 이방인을 군주로 추대한 자이다. 수많은 기원 신화 속에서 촌장, 원로 등의 타이틀을 달고 등장하는 토착인 수장들은 땅의 주인(lords of the land)으로 불리며 ‘관습을 주관하는 수호자(the guardians of adat)’로 불렸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최초로 지역의 토지를 개간한 자의 후손을 의미한다. 밀림에 불과하던 불모지를 곡식을 심을 수 있는 토지로 개간했다는 것은 오스트로네시아어권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토지를 처음 개간한 자는 도래 우선순위에서 최상위를 차지하는 자이며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관습 수장으로서 권위를 갖게 된다. 다시 말하면, 관습의 수장이라는 타이틀은 영토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은 켈드웰(Caldwell 1988)이 지적했듯, 통상 동남아시아에서 영토가 풍부하고 인력이 부족하여 영토에 대한 권리 주장이 약할 것이라는 통상적 믿음과 달리 술라웨시나 동부 인도네시아에서 영토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도래 우선순위의 문화 속에서 땅을 최초로 개간한 자는 죽어서는 지역의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는 영적인 수호령인 조상신(nenek-moyang)으로 추앙받는다. 즉 그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여전히 땅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다(Wessing 2006, 18). 이에 따라 도래 우선순위가 작동하는 지역에서는 이른바 ‘건립자 숭배(founders' cult)'가 발견된다(Geertz 1960, 23-28; Jay 1969; Wessing 2006). 이러한 지역의 거주자들은 조상신에게 충실히 제사를 지내야만 평생 풍요를 보장받고, 질병 등 환란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맥락에 비추어보면, 나

가 신화에 등장하는 비쿠시가라도 바찬섬을 최초로 개간한 자의 후손이며, 가장 먼저 지역에 도착한 씨족의 가문으로 권위를 인정받아 토착 사회의 대표가 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앞서 나열된 다양한 이방인들이 가진 능력 이외에 그들을 군주로 추대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권위(authority)와 권력(power)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에 우선한다”라는 토착 개념에서 유래한다(Lewis 2006, 169). 토착 주장들이 가진 ‘권위’는 바로 “땅의 주인”인 최초 개간자의 직계 후손이라는 신분에서 나오며, 이들은 관습 위원회를 통해 이방인 군주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많은 지역에서 이방인 군주는 수동적이며, 어린아이와 같다는 은유로 자주 표현되곤 했는데, 실질적인 땅의 주인은 관습 세력이며, 왕은 정치를 할 대리인으로서의 제한적 권위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술라웨시 북부에서는 실제로 시각장애인이거나 지체장애인, 어린아이 등을 왕으로 삼기도 했는데, 이것은 때에 따라 실제 정치가 아예 관습 위원회를 통해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Henley 2002).

많은 지역에서 귀족과 관습 세력은 식민 이전 시대에, 혹은 그 후에도 강력한 두 개의 엘리트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상호 보완적이지만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견제하는 경쟁적 관계도 동시에 발전시키며 실질적인 양두정치를 구사했다. 이를테면 포스(Forth 1981, 236-49)는 동부 솜바의 린디(Rindi) 지역에서, 마람바(maramba)라고 불리는 귀족과 라투(ratu)라고 불리던 관습 세력의 양두정치에 대해 분석했다. 헨리와 캔드웰(2008, 279)은 북 술라웨시의 부울(Buol) 지역에 왕의 권력은 움부킬라노(ombu kilano), 즉 “숨겨진 귀족” 세력에게서 나오는데, 이들은 부울의 최초 거주자의 후손이며 평민 세력이라고 설명했다. 아래에서는 서부 술라웨시의 만다르 지역에서 어떻게 귀족 세력과 관습 세력의 양두 세력이 신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Ⅲ. 만다르인과 발라니파 왕국사 개괄

만다르인(Orang Mandar)은 서부 술라웨시주의 가장 주요한 종족이다. 서부 술라웨시주는 원래 남부 술라웨시주에 속해 있다가 만다르인들이 국가에 신청한 행정구역 분할(pemekaran) 요구가 수용되면서 2004년에 독립된 주로 탄생했다. 서부 술라웨시주는 여섯 개의 군, 즉 폴레왈리 만다르(Polewali Mandar), 마즈네(Majene), 마마사(Mamasa), 마무주(Mamuju), 북부 마무주(Mamuju Utara), 중부 마무주(Mamuju Tengah)로 구성되어 있다(Rahman 2005, 30).

만다르인들은 최근까지 남부 술라웨시의 마카사르(Makassar), 부기스(Bugis), 토라자(Toraja)족과 더불어 네 개의 주요 종족으로 분류됐으며, 종족 문화는 이 종족들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Andaya 1981, 9). 만다르인들은 17세기에 14개의 바누아(Banua)라고 불리는 소왕국들이 연맹을 맺은 후 서로를 보호하고 공동체적 정체성을 발전시켰다.⁵⁾ 이 중 일곱 왕국은 산악지역에, 나머지 일곱 개는 해안가 저지대에 위치했다. 종족 문화면에서 살펴보면 산악지대 만다르인들은 중부 술라웨시 산악지역에 거주하는 토라자족에서 분리된 사람들이었고 문화도 유사하지만, 저지대 만다르인들은 해안가의 부기스-마카사르족의 종족 문화와 더 유사성을 보인다(Andaya 1981, 9). 그러나 만다르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토라자나 부기스-마카사르족의 하위문화권으로 분류하는 기존의 인식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Rahman 2005, x). 이들은 역사적으로 만다르 연맹을 통해 그들만의 고유한 종족 정체성이 구성, 발전해 왔다고 주장하며, 이런 점이 행정구역 개편의 당위성의 핵심적 내용이었다.

5) 바누아는 발라니 자바, 수마트라의 너가라(negara)에 비견되는 정치 공동체를 의미한다.

만다르 연맹 중 산악지대 일곱 왕국은 피투 울루나 살루(PUS: Pitu Ulunna Salu)라고 불렸으며, 저지대 일곱 왕국은 피투 박바나 비낭(PBB: Pitu Baqbana Binanga)이라고 불렸다(Mandra 2005, 19). 산악 왕국들은 타블라한(Tabulahan), 아랄레(Aralle), 맘비(Mambi), 밤방(Bambang), 란테블라한(Rantebulahan), 마탕응아(Matangnga), 그리고 타방(Tabang)이었다. 저지대 왕국들은 발라니파(Balanipa), 비누앙(Binuang), 슌다나(Sendana), 방가예(Banggae), 팜보앙(Pamboang), 마무주(Mamuju), 타팔랑(Tappalang)를 포함했다.

〈그림 1〉 서부 술라웨시 지도⁶⁾



남 술라웨시에서 수적으로 가장 많은 부기스인과 마카사르인은 항구를 중심으로 비옥한 저지대를 일찌감치 차지하고 강력한 해상왕국

6) <https://archipelagofastfact.wordpress.com/2012/08/22/west-sulawesi-province/>(검색일: 2021. 01. 10.).

을 건설했고, 이 과정에서 산악지대에 사는 토라자인들과 산악 만다르인들은 국가 건설을 위한 노예사냥의 희생양이 되곤 했다(Andaya 1981, 9). 또한 저지대 만다르인들도 이 종족들의 영토 확장 욕망에 시달려야 했다. 이 때문에 17세기에 14개 왕국은 연맹을 맺고, 평소에는 저마다 주권을 가지고 자치를 유지하되, 외부에서 적이 침입하면 서로 단결하여 물리치자는 조약을 체결했다(Mandra 2005, 23). 만다르 연방은 하나의 세계관과 가족관을 발전시켰다. 14개 왕국은 독자적인 관습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연방의 공통적인 관습법인 아닷 투호(Adaq Tuho)를 만들었다. 이 관습법은 회원국 간의 통합성과 각 국가가 부여 받은 역할, 위급한 상황이 도래 시 어떻게 서로를 도울 것인가 등에 관한 조항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산악 왕국 연맹인 PUS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거의 없는데, 이들이 남부 술라웨시의 저지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거의 가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이 일곱 개 왕국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기도 하는 등, 그 정체성과 공동체 인식이 뚜렷하지 않다.

발라니파는 만다르 연방에서 가장 핵심적인 저지대의 왕국이었다. 발라니파인들은 대략 12세기 말에 토라자족의 땅인 사당강 상류(hulu Saq dang)에서 만다르 곶(teluk Mandar)이 위치한 해안가로 이주했다고 전해진다. 16세기에 발라니파 왕국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촌락 공동체들이 존재했다. 16세기 초에 파소코랑(Pasokkorang)이라는 이웃 바누아가 점차 영토를 확장하면서 위협이 되자, 토마카카(tomakaka)라고 불리는 촌장들이 이끄는 네 개의 바누아인 나포(Napo), 사마순두(Samasundu), 모쏘(Mosso), 토당토당(Todang-todang)이 연합하여 동맹을 수립하고, 이웃 마카사르족이 세운 강력한 해상 왕국이었던 고와(Gowa)의 도움을 받아 위협을 물리쳤다. 이 네 개의 바누아는 발라니파 지역에 세워진 초기 4개의 바누아이며, 그중 나포가 최초의 바누아이다. 이때 발라니파 출신으로 고와 왕국 군대의 총사령관이던 토딜라

링(Todilaling)이 돌아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후 바누아 연맹은 토딜라링을 왕인 마라디아(maradia)로 추대했고, 발라니파 왕국이 시작되었다. 제2대 왕인 토메파용(Tomepayung) 시기에 영토를 확장하고 전성기를 맞이했다.

초대 왕인 토딜라링은 인근의 저지대 강국이던 고와(Gowan), 보네(Bone) 왕국 등과 교류하면서 국제무역을 발전시켰다. 발라니파에서는 17세기 초부터 파라(Para'), 바바루라(Ba'barura) 등의 항구 도시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항만청장에 해당하는 샤반다르(Sawannar)가 국제무역을 관장했다. 수도인 티남방(Tinambang)은 유럽, 아랍, 중국 상인들이 드나드는 유명한 무역 도시로 발전했다(Yasil et al. 2012, 30). 발라니파를 포함한 저지대 만다르 왕국들은 17세기 초에 이슬람을 수용했지만, 산악지대는 세계 종교 수용을 거부하고 기존의 애니미즘과 조상숭배를 유지했다.

17세기는 남부 술라웨시에 있어 거대한 변혁의 시대였다.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막강한 해상왕국 중 하나였던 고와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부기스족 연합세력과 국제무역의 패권을 둘러싼 역사적 전쟁(1666-1669)을 치렀다.⁷⁾ 역사적으로 고와 왕국과 우호 관계를 맺어 온 발라니파는 고와의 동맹 세력으로 전쟁에 참여했다. 전쟁은 네덜란드-부기스족의 승리로 끝나고 남부 술라웨시 전체는 부기스족의 영웅인 아룡 팔라카(Arung Palakka)의 권력 하에 놓이게 되었다(Andaya 1981). 발라니파의 왕들은 동인도회사-부기스 왕국과 불평등 조약을 맺고 코프라(말린 야자)를 평소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동인도회사 측에 공급하는 등 불공정 무역에 시달려야 했다(Yasil et al. 2012, 31). 아룡팔라카는 조약을 무시하는 만다르 지역에는 군사 원정을 통해 혹독

7) 당시 부기스족에 세운 왕국 중 보네, 소펡 등 여러 부기스 왕국들이 동인도회사 측에서 전쟁에 참여했다. 그러나 루우 등 또 다른 부기스 왕조는 고와의 편에서 싸우는 등, 당시 전쟁 양상은 종족 차원이 아니라 개별 왕국들의 이익을 반영한 것이었다.

한 시련을 주었다고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다(Andaya 1981, 152-159).

20세기 초에 네덜란드는 군도 전역에서 직접 식민 통치를 본격화하게 된다. 14개의 만다르 왕국들은 “만다르 구역(Afdeling Mandar)”이라는 식민 행정구역으로 개편되고 마즈네가 수도가 되었다(Mandra 2005, 19). 1942년부터 3년 반 동안 일제 강점기가 있고 난 뒤, 1945년에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후 인도네시아를 재점령한 네덜란드와 치열한 독립전쟁을 치른 혁명기가 1949년에 종료되고 인도네시아는 실질적인 독립을 맞았다. 공화국의 수립과 함께 발라니파의 마지막 왕이 자연사하면서 1959년에 왕조 체제는 역사의 뒤란길로 사라졌고, 14개 왕국의 영토는 세 개의 군인 마무주, 마즈네, 폴레왈리 마마사로 개편되었다. 발라니파는 폴레왈리 마마사군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2002년에 마마사군이 새로이 수립되었고, 2004년에는 이 네 개의 군이 합쳐져 서부 술라웨시 주가 되었다. 2005년에 폴레왈리 마마사가 폴레왈리 만다르 군(Kabupaten Polewali Mandar)으로 개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폴레왈리 만다르군은 만다르족의 저지대 두 개 왕국인 발라니파와 비누앙, 그리고 산악지대 왕국인 마탕아의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Yasil et al. 2012, 11). 아래에서는 발라니파의 기원 신화들의 분석을 통하여 두 개의 엘리트 세력인 푸앙과 다잉의 탄생을 어떻게 그리고 있으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IV. 발라니파 지역의 기원 신화 분석과 관습 세력의 형성 과정

이방인 군주제가 발견되는 많은 왕국의 기원 신화에서는 왕들의 기

원이 신비롭게 그려져 있고 기원 신화의 중심 내러티브를 차지하지만, 발라니파의 기원 신화는 관습 세력의 형성 과정에 대해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발라니파의 기원신화는 론타라 야자잎에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개의 버전이 존재한다.⁸⁾ 가장 널리 알려진 기원 내러티브 중 첫 번째는 아래와 같다(Ibrahim 1971):

지구상에 있었던 대홍수 때 단 일곱 명의 사람들만 살아남았는데 이들이 사당강 상류에 모였다.⁹⁾ 이들 중 풍카파당 (Pongka Padang)이라 불리던 자는 북쪽의 여러 산을 여행하다가 마침내 타블라한이라는 산악지역에 정착했다. 나머지 여섯 명의 인간들은 각각 루우(Luwu), 벨라우 (Belau). 보네(Bone), 라리앙 (Lariang)으로 가서 그곳의 조상이 되었으며 나머지 두 명은 어디로 갔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¹⁰⁾ 풍카파당은 타블라한에서 현지 여성인 토리제네 (Torije'ne)와 혼인하여 자손을 이루는데, 이들이 만다르인이 되었다.

또 다른 론타라 버전(Lontar Mandar-Balanipa; Mandra 2005, 83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풍카파당은 하늘에서 하강한 신인인 토니파누룽 (Tonipanurung)이 지상에 내려와 거품에서 생성된 여성(Tokombong di Bura) 혹은 대나무 줄기에서 나온 여성(Tobisse di Talang)와 혼인해 낳은 아들이며, 그의 형제들이 주변국으로 흩어져 왕국을 수립했다고 전한다.¹¹⁾ 이 버전의 이야기들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풍카파당이 라는 자가 만다르인들의 조상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8) 론타라 야자잎에 왕실 연대기와 기원 신화를 기록하는 전통은 발리, 술라웨시에서 많이 나타난다.

9) 기독교 구약과 이슬람 쿠란에 등장하는 대홍수와 방주 이야기는 술라웨시와 말루쿠 등 동부 인도네시아 지역 신화에서도 종종 등장한다.

10) 이 왕국 중 루우와 보네는 남부 술라웨시에서 부기스족이 건설한 왕국이며, 라리앙은 현재의 서부 술라웨시에 위치한 지역이다. 벨루앙의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11) 토니파누룽과 토마누룽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뜻이며, 전자는 주로 발라니파에서, 후자는 부기스와 토라자 사회에서 사용되지만 발라니파에서 토마누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퐁카파당이 토라자인, 또는 신인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그가 만다르 토착인이 아닌 이방인라는 점을 암시한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인 토니파누룽에 대한 내러티브는 남부 술라웨시의 기원 신화에서 흔히 등장한다. 마카사르족, 부기스족, 토라자족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토마누룽(*tomanurung*)이라는 신인을 조상으로 여긴다. 부기스족의 오딧세이라고 불리는 라갈리고(*I La Galigo*)라는 론타라 야자잎에 적힌 대서사시 속에는 흉작과 전염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 촌장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왕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토마누룽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서사가 적혀있다(Caldwell 1988; Cummings 2002; Druce 2009; Rössler 1990; Röttger-Rössler 2000). 부기스와 마카사르의 사회에서 토마누룽의 후손인 귀족들은 흰 피(*darah putih*)가 흐른다는 표현이 자주 발견되는데, 이것은 그들의 일반인과는 다른 고귀한 혈통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¹²⁾

기원 신화에 퐁카파당과 혼인하는 여성을 만다르의 토착 여성 또는 거품이나 대나무 줄기에서 나온 여성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토착 여인과의 혼인은 이방인들이 토착 사회에 흡수되는 방편을 의미한다(Caldwell 1988, 1991, 1995; Caldwell and Bougas 2004; Cummings 2002; Druce 2009; Gibson 2005; Röttger-Rössler 2000; Sahlins 1985). 현지 여성은 주로 촌장의 딸이나 공주 등 권력을 가진 가문의 딸을 의미하는데, 이는 정치 권력이 사위에게 계승될 것을 의미한다. 여성을 통한 권력의 취득은 이방인 군주제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거품이나 대나무 줄기에서 나온 여성이라는 내러티브도 술라웨시 등지에서 자주 등장한다. 거품은 하늘에서 신인이 호수나 강 등으로 하강하면서 물에 접촉할 때 거품이 일고, 그 속에서 인간이 등장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대나무는 나가의 알과 마찬가지로 여

12) 북말루쿠에서도 이런 표현이 발견되는데, 이 지역의 귀족의 피는 푸른색이라고 한다.

성의 신비로운 태생과 토착인임을 암시하는 모티브이다. 이러한 여성들은 평범한 인간들에 비해 비범한 계급성을 나타낸다.

그런데 만다르의 사례가 앞 장에서 설명한 이방인 군주제의 보편적인 양상과 비교해 특이한 점은, 이런 전통이 나타나는 많은 지역에서 토마누롱이 다잉의 조상으로 그려지지만 발라니파에서는 푸앙의 조상으로 그려진다는 점이다. 나가 신화에서도 보이듯 관습 세력은 대개 토착 세력인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발라니파의 푸앙 또한 이 지역에 도래한 이주 세력으로 사회의 엘리트 세력으로 부상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동남부 술라웨시의 부톤 왕국의 기원 설화에서도 관습 세력이 이주 세력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기원 신화에서는 말레이반도 남부 조호르(Johor)에서 온 미아파타미아나(Mia Patamiana)와 세 명의 동료가 13세기 말 - 14세기 초에 부톤에 도착한 이후, 불모지를 쓸모있는 땅으로 개간하고, 땅의 소유권을 다른 세력으로부터 인정받아 관습 세력이 되어 대나무 줄기에서 나온 와카카(Wa Kaa Kaa)라는 여성을 초대 왕으로 옹립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Song 2018). 이주 세력이 관습 세력화되었다는 의미는 이 세력이 다른 이주자 세력(혹은 토착 세력)과 영토, 자원을 둘러싼 경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여 토착세력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톤의 신화에서도 미아파타미아나 일행이 도래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이주자 세력이 살고 있었지만, 미아파타미아나와의 경쟁에서 패배하여, 결국 영토를 합병당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Song 2018). 즉,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도래 우선순위는 인도의 카스트처럼 고착화된 사회 계급이 아니라, 후 순위 세력의 반역, 세력 경쟁 등에 의해 우선순위가 뒤집힐 수 있는 유동적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토마누롱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풍카파당의 후손들은 이주 세력이면서도 세력 경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토착세력 혹은 관습 세력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풍카파당의 신화에서 나타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토니파누롱의

아들들이 일곱 지역으로 흩어져 왕국을 건설한다는 점이다. 이 중 지역이 정확하지 않은 곳을 빼고 루우와 보네는 부기스족이 세운 왕조인데, 이것은 발라니파의 기원 신화에서 막상 만다르족이 세운 왕국들과의 혈연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 술라웨시의 저지대 종족과 형제임을 강조하며 동맹 의식을 지녔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마도 발라니파가 저지대 해상왕국으로 발전하면서 해상왕국들과의 동맹 이데올로기가 발전한 것이 이 신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다르 연방은 아룡팔라카가 이끄는 부기스 세력이 외부의 위협으로 등장한 17세기에서야 수립되었고, 촌락 연맹은 훨씬 이전에 수립되었으므로, 토마카카의 기원 신화에는 아직 만다르 국가들을 혈연 공동체로 묶는 내러티브가 아직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퐁카파당의 후손들은 토마카카(tomakaka)라고 불렸으며 총 41개의 바누아(banua)를 다스렸다(Leyds 1940, 24-25). 토마카카는 사람을 뜻하는 '토(to)'에 손위 형제 또는 자매를 뜻하는 카카(kaka)'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주민들에 의해 연장자로 추앙받는 자(orang yang dituakan di dalam masyarakat)'라는 뜻을 가진다(Rahman 2005, 32).¹³⁾ 토마카카들은 앞서 바찬의 나가 알 신화에서 토착사회의 대표이자 원로였던 비쿠시가라에 비견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올리버 월터스(Wolters 1982, 5-9)가 표현한 대로, 태평양 지역의 빅맨(big men)들이 그러하듯, '역량 있는 자(men of prowess)'에 해당한다. 월터스는 빅맨을 조상신과의 교통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영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존재라고 묘사했다. 발라니파의 주민들은 토마카카를 "많은 능력을 지닌 자" 또는 "백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석한다(Rahman 2005, 112). 토마카카들은 발라니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천재지변 등의 환란이 발생했을 때 조상의 무덤

13) 부톤 신화에 등장하는 초대 여왕인 와카카(Wa Kaa Kaa)도 여성을 뜻하는 와(wa)에 손위 형제(kaka)가 합쳐진 단어이다.

(kuburan tosalama' - bertuah)에서 기도를 올리거나 조상신과의 빙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었다고 전해진다. 토마카카는 여러 권능 중 특히 농사와 토지의 비옥함을 관장할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Rahman 2005, 112). 토마카카들은 16세기에 최초의 왕이 추대될 때까지는 사회의 유일한 엘리트 계층이었다.

V. 초대 왕의 옹립과 귀족 엘리트 세력의 형성

수많은 지역의 기원 신화에서는 관습 세력과 이방인 군주 사이에 계보가 분명히 구분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발라니파의 기원 신화에서는 관습 세력과 군주가 같은 뿌리에서 갈라졌다고 설명한다. 귀족 세력의 기원에 대해 역시 몇 개의 론타라 버전이 발견되는데, 이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두 개의 일화 중 첫 번째는 초대 왕인 토딜라링의 계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토딜라링은 나포의 토마카카인 디포요상 (Dipojosang)의 형제였다. 그는 어렸을 때 밀림에 버려졌는데, 디포요상의 아버지가 그를 입양했다.¹⁴⁾ 토딜라링은 청소년기에 실수로 사촌을 죽이게 되고, 처벌을 피해 이웃 무역 국가인 고와로 밀항을 하게 되었다. 배의 선원들이 그를 발견하고 죽이려 하는데 그의 머리 주변을 둘러싼 원형의 빛을 보게 되었다. 이를 보고 선원들이 그를 고와의 왕에게 데려갔는데, 왕은 토딜라링이 끼고 있는 반지가 고와의 건국왕으로부터 전수된 왕실 유물 (pusaka) 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를 친족이라고 여겼다. 고와에서 그는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여 전쟁의 총사령관 (panglima perang)이 되었고, 왕실 여인과 혼인을 했다. 그러던 중, 파스코랑 등 몇 지역의 토마카카들이 영토를 위협해 오자 디포요상이 그에게 귀국을 요청했다. 고와

14) 현지인들은 토딜라링이 디포요상의 조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다.

의 왕은 귀국길에 오른 토딜라링에게 여러 왕실 보물 (징, 지팡이, 피리, 북, 방패 등)을 하사했다. 귀국 후 토딜라링은 적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Rahman 132-141).

이 내러티브를 보면 푸앙과 다잉이 같은 혈연에서 나왔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이방인 군주제의 전형적 패턴, 즉 관습 세력은 토착인이며 군주는 후속 이주자 세력이라는 구도에서 벗어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사실 이방인 군주제가 나타나는 여러 지역에서 두 세력을 하나의 뿌리라고 강조하는 사례가 꽤 존재한다. 이런 사례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유력 가문의 권위가 정치, 관습(의례 포함)의 두 개의 분야로 권력과 권위가 갈라지는 양상을 보이며, 사회에 이런 패턴의 양두정치 패턴이 정치 문화로 폭넓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버전은 그가 푸앙 세력과 마찬가지로 토마누롱과 거품 공주 사이에 태어난 후손이라고 전한다(Lontara Kumpulan Darmawan 33; Rahman 2005, 135-136에서 재인용):

하늘로부터 사당강 상류에 토마누롱이 내려와 거품에서 나온 여성 (Tokombong Diwura)을 부인으로 맞았다. 그들은 토바누아 풍(Tobanua Pong) 이라는 아이를 출산했다. 토바누아풍은 일란독 (Ilandoq Beluaq)을 낳았는데 이 아이는 자라서 마카사르로 갔다. 그의 형제인 일라소케팡 (Ilassokepang)은 루우로 이주했다. 또 다른 형제인 일란도군툽 (Ilandoguntuq)은 사당 상류에 거주했다.....[이들의 후손인] 시바낭앙 (Sibanangang)은 마마사와 마수푹 (Massupuq)에 도착했다. 이들 중 이 북카파당 (Ibokkapadang)은 맘불릴링 (Mambuliling)에 거주했는데, 피라후를 타고 메카에서 온 여성과 혼인했다. 이들의 손자는 11명인데, 그들은 타블라한, 타방아, 울루 살루, 마무주, 슨다나, 맘부로 갔다....이들 중 막내 아이는 토팔리(Topali)였는데, 그가 타비툽(Tabittoeng)을 낳았고, 타비툽은 타우라우라 (Taurra-urra)를 낳았는데, 그의 손자가 바로 토딜라링이다.(연구자 축약)

두 번째 토딜라링의 계보는 푸앙과 마찬가지로 다잉이 토마누룽의 신성한 후손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푸앙과 토딜라링의 세력이 모두 이주 세력임을 의미하고 있다. 푸앙과 다잉 세력이 같은 기원을 가졌다는 것은, 당시의 지배 세력이 사회를 원활하게 다스리고,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당시 인근 지역에서 전통으로 자리 잡은 양두정치를 따르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씨족 내 구성원들이 권력과 권위를 나누어 가졌다는 의미가 된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푸앙의 기원 신화에서 발라니파인들과 형제 관계로 묶인 종족이 부기스족에 한정되어 있던 반면, 토딜라링의 내러티브에서는 마카사르, 부기스족의 지역과 더불어 만다르 왕국인 마마사, 타블라한, 타방아, 마무주, 슌다나 등과도 혈연 공동체라는 내러티브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토딜라링이 16세기 후반에 왕에 오르고, 17세기에 만다르 연맹이 결성된 것과 관련이 있는 듯 보인다. 즉, 앞서 간략히 설명했듯, 부기스-네덜란드 동인도 연합군에게 마카사르-만다르 연합군이 패배한 후, 만다르인들은 아룽팔라카가 이끄는 군사 원정에 시달려야 했는데, 바로 이러한 외부의 위협이 산악, 저지대의 만다르인들을 형제 공동체로 묶어 위기를 극복하려는 원동력이 되었고, 연맹 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혈연공동체”라는 내러티브가 기원 신화에 삽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세력은 왕의 추대 이후 본격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본격적인 양두정치를 시작했다. 발라니파인들이 토딜라링의 업적 못지않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디포요상과 그가 만든 관습 위원회인 아페 바누아 카이양(appe banua kaiyang, 네 개의 큰 바누아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네 개의 바누아는 나포, 사마순두, 모쏘, 토당토당을 의미한다. 관습 위원회는 왕을 추대하기 전에 이미 수립된 것으로 보인다. 각 바누아의 토마카카들로 구성되었는데, 기존에 토마카카의 리더십에 의존하여 자

치적으로 발전하던 바누아들이 점차 커지고, 이주민이 늘어나자, 확대된 사회를 효율적으로 다스릴 제도가 필요해짐에 따라 수립되었다. 이때부터 개별적인 바누아를 넘어 바누아들끼리의 동맹체가 수립되어 이후 발라니파 왕국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관습위원회의 수장으로서 디포요상은 토딜라링을 왕으로 추대하고 나서 토마카카와 다잉 사이에 권력과 권위를 이분화하고 본격적인 양두정치 체제를 확립했다(Leyds 1940, 27-29; Rahman 2005, 110).¹⁵⁾ 디포요상은 왕이 관습 위원회의 결정과 국가 아닷(Ada' Lita')에 따라 정치를 하게끔 권력에 한계를 정했다(Kila 2013, 1-2). 타팔랑 지역의 푸앙의 한 후손은 디포요상이 왕을 추대하면서 왕과 관습 위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을 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왕이 있지만, 그것은 하닷(Hadat) [관습위원회를 일컬음이 선출한 것이다. 하닷과 왕은 같은 부모에서 나온 형제·자매다. 그러나 하닷이야말로 권력(kuasa)를 의미한다. 하닷이 원하는 바에 따라 왕을 선출하며,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임한다. 하닷은 태초부터 [이 땅에] 존재하던 것이다. (Mandra 2005, 75-76에서 인용)

토딜라링을 마라디아, 즉 왕으로 추대한 후 관습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와 마라디아 간 권력을 나누기로 합의했고, 관습 위원회는 입법 및 백성의 대표기구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으며, 마라디아는 행정을 담당하기로 합의했다(Asdy and Sewang 2012, 20; Kila 2013, 3-4). 관습 위원회는 다잉의 정치가 영토와 백성들에게 해가 되면 백성의 이름으로 아닷 세력에 의해 추방되도록 관습을 제정했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15) 초기 4개의 바누아가 확장된 10개의 바누아(sappulo ana' banuanya)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발라니파 영토에 합병되어 자치를 인정받은 6개의 바누아와 3개의 왕국, 그리고 영토 정복을 통해 합병된 8개의 바누아가 합쳐져 발라니파가 되었다(Kila 2013, 84, 128-132).

제11대 왕인 다잉 리오소(Daeng Rioso, 재임: 1674-1676)가 관습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되었다(Yasil et al. 2012, 27).

왕의 옹립과 함께 토마카카들은 파푸앙안(pappuangan)이라고 불리면서 보다 조직화된 관료가 되었다(Asdy and Sewang 2012, 17-20).¹⁶⁾ 기존의 토마카카가 자신의 바누아에 한정되어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한 지도력을 보였다면, 파푸앙안들은 관습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처리를 해야 했으므로 상위 기관(관습 위원회)의 권위로 인해 권력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파푸앙안 시대부터 바누아 사이에 잘 짜인 사회계약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파푸앙안은 바누아의 통치를 지속했고, 자치지역의 왕처럼 통치했다.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 파푸앙안은 백성의 대표로 인식되었다. 이것은 발라니파와 사회가 가진 자치성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즉 파푸앙안 세력은 자신의 바누아 내에서는 행정을 담당했지만, 중앙 정부의 관료로서는 입법, 관습을 맡은 수장이었던 셈이다.

발라니파의 역사 속에서 관습 위원회는 식민 시기 이전까지 다잉 세력을 견제하며 강력한 권력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관습 위원회는 다잉의 후손 중 적합한 인물을 왕으로 선출하기 위해 청소년기 귀족 아이들을 특별한 교육기관에서 가르쳤다. 또한 어느 후보를 새로운 왕으로 지정하면, 지역 내에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발생하는가를 따져, 그가 적절한 왕의 자격을 가졌는지를 살폈다(Rahman 2005, 149). 발라니파인들은 부적절한 인물이 왕이 되어 정치를 망치면 땅은 뜨거워지고, 우주는 망가지며, 전염병이 창궐하고, 농사는 실패할 것이고, 홍수가 그치지 않고, 물고기는 물을 떠날 것이며 국가는 붕괴하고 백성은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Rahman 2005, 151). 이러한 믿음은 관습 위원회 위원들의 일탈 행위에도 적용되었다. 또한 다잉과 푸앙의 두 세력의 화

16) 파푸앙안은 ‘푸앙이라 칭해진 사람(seseorang yang disapa puang)’이라는 뜻이다.

합이 국가와 백성의 안녕을 위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사회적 이데올로기로 발전했다(Mandra 2005, 75-76). 안다야(Andaya 1981, 13)는 이렇게 너가라가 연맹을 맺기 시작하여 왕국으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거주 공동체들이 군주와 자문위원회 [관습위원회를 의미함]의 공존을 통하여 사회를 부드럽게 운영하는 작은 국가들(mini-states)로 발전하는 것은 더 큰 국가 단위로 발전해나가는 첫 단계라 볼 수 있다. 이런 작은 국가들은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자기, 방어나 기타의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더욱 큰 정치 단위를 구성하려고 서로 합친다.

마지막으로 토딜라링의 기원 신화에서 드러나는 것은 발라니파와 고와와의 강력한 연계성이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발라니파는 왕의 추대 이후 남부 술라웨시의 주요한 국제무역 국가로 발전했다. 마라디아의 수립은 주변 왕국들이 겪던 역사적 변혁과도 깊이 관련이 있다. 말레이반도의 말라카 왕국이 1511년에 몰락한 후 국제무역의 중심지가 분산되기 시작했는데, 수마트라의 아찌나 브루나이뿐만 아니라 술라웨시 해안가도 발전하기 시작했다(Andaya 1981, 26-27). 발라니파를 중심으로 한 만다르의 저지대도 이때부터 해상 무역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한 듯 보인다. 이런 역사적 과정 속에서 나포와 초기 바누아의 토마카카들이 토딜라링을 도와 국가 건립에 나선 것이다. 제2대 왕인 토메파용 시대 아래로 무역은 공고히 수립되었다(Rahman 2005, 44). 실제로 역사 속에서 토딜라링이 최초의 왕이 되고 내륙에 위치한 나포에서 해안가의 티남붕으로 천도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 발라니파는 이슬람을 수용했다.

이방인 군주의 옹립과 국제무역의 발달은 술라웨시와 말루쿠 등지에서 공통적으로 전형적인 패턴, 즉 통상 관습 세력 또는 토착 세력은 산과 내륙, 농업을 상징하는 반면, 이방인 군주 혹은 귀족 세력은 바다

와 저지대, 국제무역을 상징한다는 전형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지역에서 이방인 군주로 추대되는 사람은 아랍이나 인도, 자바 등 국제무역을 활발하게 일어나는 문명권에서 온 자로, 외국과의 국제무역의 중개자 역할을 하고 세계 지식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자들이 경우가 많았다. 기원 신화에서 토딜라링이 고와 왕국의 왕족과 혼인하고, 가족으로 대우받은 것은 이 시기부터 발라니파가 저지대 해상왕국으로 발전을 시작했고, 고와 왕국의 선진적인 제도와 문물을 수용했으며, 고와의 강력한 동맹 세력이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I. 나가며

본 연구에서는 식민 이전의 사회에서 발라니파 왕국의 두 엘리트 세력의 형성 과정이 어떻게 기원 신화에서 나타나는가, 그리고 두 세력 간의 관계와 각각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상적인 이방인 군주제 이론에서 자주 나타나는 양두정치의 특성이 발라니파 계급에도 드러남을 보여준다.

많은 지역에서 관습 세력은 토착인 세력으로, 귀족은 토착 사회에 동화된 이방인 세력으로 묘사되지만, 발라니파에서 두 세력은 같은 씨족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것으로 묘사된다. 또한 관습 세력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 또는 토라자에서 이주한 영험한 인물로 그려지면서 푸앙 세력이 이방인 세력임을 암시하고 있다. 신성한 피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푸앙 세력이 가진 중요한 역할을 암시한다. 이것은 이방인 군주제가 나타나는 다른 지역에 비교해 푸앙이 다임을 능가하는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푸앙 세력은 사회가 복잡해지자 정치를 토딜라링에게 위임함으로써 귀족 세력이 형성된다. 이 두 세력은 상

호 혼인을 통해 동질적인 정체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되었지만, 그 권위/권력 간의 분리와 궁중 직책에 분명한 경계를 뚫으므로 상호 견제를 통해 독재를 막고 균형있는 정치를 구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유지했다.

식민 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면서 두 세력의 관계는 중대한 변화를 맞았다. 이것은 후속 연구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어져야 하겠지만, 간략히 살펴보면, 식민 이전에 푸앙과 다잉 사이에 세력 경쟁이 벌어졌고, 이것이 네덜란드 세력에게 내정 간섭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Rahman 2005, vi). 또한 서구의 계급 인식이 이식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귀족 세력이 유일한 엘리트 세력이었던 유럽의 인식 속에서, 사실상 푸앙의 견제 하에 놓여 제한적 권력밖에 구사하지 못하던 다잉을 유일한 엘리트 세력이라 인식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푸앙을 엘리트 세력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잉이 푸앙의 권위를 누르고 유일한 엘리트화 하려고 하자, 푸앙이 이에 반대 공세를 펼쳤다. 이 와중에 귀족들이 관습위원회의 위원직을 차지하거나, 왕들이 관습 위원을 해고하는 등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는 일이 잇따랐고, 결국 다잉이 푸앙의 권위까지 다 차지해버리고 말았다(Manra 2005, 78-79; Rahman 2005, 234).

이 연구는 자바의 신권왕 사상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동부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백성 - 엘리트 간의 통치 문화가 관습 세력-귀족 세력 간의 역할 분배 및 견제 메커니즘을 통해 발현되었는가를 보여준다. 마을 주민들에게 “선택된 자”로서의 군주는 “권력이 하늘에서 내려오며 선악과 관련이 없는 어떤 것”이라는 자바의 권력 개념과 큰 차이를 보인다(Anderson 1990; Caldwell 1991; Druce 2009). 자바에서의 권력은 확고하고 동질적이며, 군주에게 집중되어 있고, 우주를 움직이는 신비로우며 성스러운 에너지라 간주되는(Anderson 1990: 22) 반면, 동부 인도네시아에서 군주의 권력은 백성들의 대표인 관습 위원회에

의해 견제받고 제한을 받는 것이다. 또한 영토보다는 인력(맨파워)이 중요한 다른 지역과 달리 동부 인도네시아에서는 도래 우선순위와 개척자 조상숭배 사상 등이 고도로 발달한 것으로 봐서 영토가 사회적으로 가졌던 중요성에 대해 알려준다. 자바나 수마트라와 비교되는 이러한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오스트로네시아어권의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투 고 일: 2021년 1월 15일

심사완료일: 2021년 2월 16일

게재확정일: 2021년 2월 16일

참고문헌

- Andaya, L. Y. 1981. *The Heritage of Arung Palakka*. Brill.
- Andaya, L. Y. 1993. *The World of Maluku: Eastern Indonesia in the Early Modern Period*.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Anderson, B. R. O. G. 1990. *Language and Power: Exploring Political Cultures in Indone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Asdy, H H Ahmad. and Anwar Sewang Anwar Sewang eds. 2012. *Kilas Balik, Jelajah: Situs Sejarah dan Cagar Budaya di Mandar*. Pemerintah Kabupaten Polewali Mandar.
- Caldwell, I. and W. A. Bougas. 2004. "The Early History of Binamu and Bangkala, South Sulawesi." *Bijdragen tot de Taal-, Land- en Volkenkunde* 160: 456 - 510.
- Caldwell, I. 1988. *South Sulawesi A.D. 1300 - 1600: Ten Bugis Texts*. Ph. D. thesi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Cummings, W. 2002. *Making Blood White: Historical Transformations in*

- Early Modern Makassar*.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Druce, S. C. 2009. *The Lands West of the Lakes: A History of the Ajattappareng Kingdoms of South Sulawesi 1200 to 1600 CE*. Leiden: KITLV Press.
- Dumont, L. 1980. *Homo Hierarchicus: The Caste System and Implica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orth, G.R. 1981. *Rindi: An Ethnographic Study of a Traditional Domain in Eastern Sumba*. The Hague: Nijhoff.
- Forth, G. 2009. "A Tale of Two Villages: Hierarchy and precedence in Keo dual organization(Flores, Indonesia)." M. Vischer, ed. *Precedence: Social Differentiation in the Austronesian World*. Canberra: ANU E Press.
- Fox, J. J. and C. Sather, eds. 2006. *Origins, ancestry and alliance: explorations in Austronesian ethnography*. Canberra: ANU Press.
- Geertz, C. 1976. *The Religion of Jav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ibson, T. 2005. *And the Sun Pursued the Moon: Symbolic Knowledge and Traditional Authority among the Makassar*.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Henley, D. and I. Caldwell. 2008. "Kings and Covenants: Stranger-kings and Social Contract in Sulawesi." *Indonesia and the Malay World*. 34(105): 269 - 291.
- Henley, D. 2002. *Jealousy and Justice: The Indigenous Roots of Colonial Rule in Northern Sulawesi*. Amsterdam: VU Uitgeverij.
- Howard, A. 1985. "History, Myth and Polynesian Chieftainship: The Case of Rotuman Kings." A. Hooper and J. Huntsman, eds. *Transformations of Polynesian Culture*. Auckland: Polynesian Society.

- Ibrahim, M.S. 1971. *Kumpulan Coretan tentang Pitu Ulunna Salu*. Majene: Diklat.
- Jacobs, H., ed. and trans. 1970. *A Treatise on the Moluccas(c. 1544): Probably the Preliminary Version of António Gálvao*. Rome: Jesuit Historical Institute.
- Jay, R. R. 1969. *Javanese Villagers: Social Relations in Rural Modjokuto*. Cambridge, MA: Mit Press.
- Kila, S. 2013. *Struktur Pemerintahan Kerajaan Balanipa dan Perkembangannya*. Makassar: Penerbit De Lamacca.
- Lewis, E.D. 1988. *People of the Source*. Dordrecht: Foris. KITLV. Verhandelingen.
- _____. 2006. "Origin Structures and Precedence in the Social Orders of Tana' Ai and Sikka." James J. Fox and Clifford Sather, eds. *Origins, Ancestry and Alliance: Explorations in Austronesian Ethnography*. Canberra: ANU Press.
- _____. 2010. *The Stranger-kings of Sikka*. Leiden: KITLV Press.
- Leyds. 2006. *Memori van Overgave, Assisten Resident Mandar (terjemahan)*. Makassar: Yayasan Kaitupa.
- Mandra, A. M. 2005. *To Manurung di Mandar dalam Tinjauan Syariat Islam*. Majene: Yayasan Saq-Adawang Sendana Majene.
- McWilliam, A. R. 1989. *Narrating the Gate and the Path: Place and Precedence in South West Timor*. Ph. D. thesi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Nourse, J. W. 1994. "Textbook Heroes and Local Memory: Writing the Right History in Central Sulawesi." *Social Analysis* 35: 102-121.
- Rahman, D. M. 2005. *Puang & Daeng: Sistem Nilai Budaya Orang Balanipa-Mandar*. Surakarta: Zedahaniva.
- Reuter, T. 2006. "Land and Territory in the Austronesian World." Thomas

- Reuter, ed. *Sharing the Earth, Dividing the Land: Land and Territory in the Austronesian World*. Canberra: ANU Press.
- Rössler, M. 1990. "Striving for Modesty." *Bijdragen tot de Taal-, Land- en Volkenkunde* 146: 289 - 324.
- Rössler, M. 2000. "From Divine Descent to Administration: Sacred heirlooms and Political Change in Highland Gowa." R. Tol, K. van Dijk, and G. Acciaioli, eds. *Authority and Enterprise among the Peoples of South Sulawesi*. Leiden: KITLV Press.
- Sahlins, M. 1985. *Islands of Hist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2008. "The Stranger-king or, Elementary Forms of the Politics of Life." *Indonesia and the Malay World* 36(105): 177 - 199.
- Schoorl, P. 1994. "Power, Ideology and Change in the Early State of Buton." G.J. Schutte, ed. *State and Trade in the Indonesian Archipelago*. Leiden: KITLV Press.
- Song, S. W. 2018. "Origin Narratives, Origin Structures, and the Diarchic System of Buton kingdom, Indonesia." *Indonesia and the Malay World* 46(135): 135-153.
- Vischer, M. P., ed. 2009. *Precedence: Social Differentiation in the Austronesian World*. Canberra: ANU E Press.
- Wessing, R. 2006. "A Community of Spirits: People, Ancestors, and Nature Spirits in Java." *Crossroad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8(1): 11-111.
- Wolters, O.W. 1982. *History, Culture, and Region in Southeast Asian Perspective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Yasil, S., B. Thalib and R.A. Muhammad. 2012. *Naskah Awal Sejarah Polewali Mandar*. Dinas Perhubungan, Komunikasi dan Informatika Kabupaten Polewali Mandar.

Abstract

The Formation of the Elite Groups and Diarchy
Reflected in the Origin Narratives of the Balanipa
Kingdom, West Sulawesi, Indonesia

Seung-Won SONG

Dept. of Malay-Indonesia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origins of the two traditional elites group of the Balanipa Kingdom, which were called the *puang* and *daeng*. The *puang* belongs to the so-called *adat* group, while the *daeng* refers to the aristocracy. In eastern part of Indonesia, where the primordial culture of the Austronesian-speaking people remained, the *adat* group was an equal leader with the aristocracy group. Both groups led the so-called diarchy. The former was established based upon the principles of the ‘precedence order of arrival’, which became the social backbone of the Austronesian region. This group was the descendants of the first settler of the region. When the communities developed into a state, the *adat* group installed a king whose origin was foreign and endowed political power to him. Yet, the case of Balanipa reveals that the *puang* itself also had foreign-origin. Perhaps, this group was one of the immigrant

groups, and via competition or usurp with the earlier immigrant groups, it obtained the status as the land owner and *adat* group. The origins of the *puang* and *daeng* are generated from the same root, which means that the Balanipa people controlled the society by separating the power and authority in order to prevent the power abuse and efficient social control by adopting the diarchic tradition.

Keywords: The Balanipa Kingdom, puang, daeng, diarchy, stranger-kingship

